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8. Vol. 37, No. 3, 323-338

Original Article
© 2018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6
eISSN 2733-4538

Instrumental and Reactive Transgressions of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ic Traits: Focus on Moral Emotion, Moral Disengagement, and Unethical Decision Making

Hwang Youn†

Liberal Art School, Kyonggi University, Suwon, Korea

It is argued that transgressions of primary psychopathy have instrumental purpose while transgression of secondary psychopathy have reactive features. This study compares and explains the psychological processes that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y end up with transgressions in order to extend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heterogeneity of the two psychopathies.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carries out Levenson's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the Korean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scale for adults, the moral emotions scenario scale (instrumental/reactive), and the unethical decision making scale (instrumental/reactive) on 712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Two research models, where moral emotions (instrumental/reactive) and moral disengagement work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ic traits and unethical decision making (instrumental/reactive), were used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research model 1, indirect effects of moral emotions and moral disengagement are identified in the relation between primary psychopathic traits and unethical decision making for instrumental purpose. In addition, an indirect effect of moral disengagement is identified in the relation between secondary psychopathic traits and unethical decision making for instrumental purpose. Meanwhile, in the research model 2, a direct effect as well as an indirect effect of moral emotions and moral disengagement is identified in the relation between primary psychopathic traits and unethical decision making by reaction. additionally, an indirect effect of moral disengagement is identified in the relation between secondary psychopathic traits and unethical decision making by reaction. This research suggests effective interventions for prevention, treatment and education for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y.

Keywords: primary psychopathy, secondary psychopathy, morality, unethical decision making, moral emotions, moral disengagement

정신병질은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범죄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장애가 아니라, 몇 개의 하위유형으로 구별되는 이질적인 장애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신병질 측정도구로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PCL-R의 다차원적 구조는 정신병질에 관한 다양한 유형학적 제안을 가능케 하는데 (Cooke & Michie, 2001; Harpur, Hare, & Hakstian, 1989; Hervé, Ling, & Hare, 2000), 가장 대표적인 구분은 1차성 정신병질과 2차성 정신병질로의 구분이다(Blackburn, 1975; Karpman, 1941; Lykken, 1995; Skeem, Poythress, Edens, Lilienfeld, & Cale, 2003). PCL-R의 가장 전형적인 요인구조라 할 수 있는 1요인과 2요인으로의 구분은 각각 1차성 정신병질과 2차성 정신병질을 반영한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PCL-R의 두 요인과 정신병질의 다양한 외적 준거들 간의 차별적인 상관관계를 증명함으로써 두 정신병질로의 구분은 상당한 경험적 지지를 받고 있다(Frick, Lilienfeld, Ellis, Loney, & Silverthorn, 1999; Hare, 1991; Verona, Patrick, & Joiner, 2001). Skeem 등(2003)은 정신병질의 하위유형을 다룬 실증적 연

†Correspondence to Hwang Youn, Liberal Art School, Kyonggi University, 154-42 Gwanggyosan-ro, Yeongtong-gu, Suwon, Korea; E-mail: andsalt@hanmail.net

Received May 30, 2018; Revised Jul 30, 2018; Accepted Aug 1, 2018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5S1A5B5A07042115).

www.kci.go.kr

구결과들을 토대로 두 정신병질을 구분할 수 있는 네 가지 준거로서 병인론, 정서 반응성, 경계선 성격특성, 자기애적 성격 유형을 제안한 바 있다. 즉, 1차성 정신병질은 유전적 소인이 강한 반면, 2차성 정신병질은 유·소년기 학대나 방임 등 환경적 요인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며(Karpman, 1941, 1948; Mealey, 1995; Newman & Schmitt, 1998; Newman, Schmitt, & Voss, 1997), 1차성 정신병질은 정서적 둔감성이 현저한 반면, 2차성 정신병질은 충동성 및 특질불안과 관련된다(Alterman et al., 1998; Haapasalo & Pulkkinen, 1992; Hervé et al., 2000). 또한, 1차성 정신병질은 경계선 성격장애와 무관하고 자기웅대성이 외현적 자기애를 통해 드러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 2차성 정신병질은 경계선 성격장애와 상당한 중첩을 보이며, 내현적 자기애를 통해 그 웅대성이 발현된다는 차이점이 있다(Blackburn, 1998; Blackburn & Coid, 1999; Wink, 1991; Wink & Donahue, 1997). 이상과 같은 차이는 두 정신병질이 관여하는 위반행동의 질적인 차이로 작용하게 된다(Hart & Dempster, 1997). 즉, 1차성 정신병질의 위반행동은 개인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동기화되는데, 많은 경우 계획적이고 합목적적이며 착취행동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도구적인 목적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1차성 정신병질은 최근 개념화되고 있는 성공적 정신병질(successful psychopath)과도 상당한 중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차정 정신병질의 위반행동은 반응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모욕이나 도전 등 불쾌하게 지각되는 사회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대개 충동적, 반복적인 폭력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Baumeister, 1997; Falkenbach, Poythress, & Greevy, 2008; Geen & Donnerstein, 1998). 이처럼 두 정신병질의 위반행동은 그 동기와 행동표현형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폭력 위험의 예방과 치료, 평가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Skeem et al., 2003).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들이 다뤄온 유전 및 기질·성격적 요인들을 넘어서, 두 정신병질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주로 범하는 위반행동의 심리적 과정들을 비교·이해함으로써 두 정신병질로의 구분이 갖는 함의를 더욱 구체화하고자 한다.

'도덕적 판단이 추론에 의한 것인가, 직관에 의한 것인가'는 2000년 이후 도덕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논쟁 중 하나이다(Conway & Gawronski, 2013; Lincoln & Holmes, 2010; Ugazio, Lamm, & Singer, 2011). Piaget(1965)를 시작으로 Kohlberg(1969), Turiel(1983), Rest(1979), Hoffman(2000)으로 이어지는 인지발달적 관점의 도덕성 연구는 개인의 도덕적 추론 능력과 그 발달과정을 다뤄왔는데, 이러한 도덕심리학의 전통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행위가 사고에 의존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반면, 도덕적 판단에 작용하는 정서의 역할은 2000년 이전까지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Haidt, 2001). 그러나 Haidt(2001)가 제안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social intuitionist model)은 도덕적 판단에 관한 이성 및 사고중심의 관점을 정서적 관점으로 옮겨놓았다(Hutcherson & Gross, 2011; Tyszka & Zaleskiewicz, 2012; Ugazio et al., 2011). 이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정서경험에 기반한 직관의 결과이며 도덕적 추론은 결과에 대한 사후설명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Haidt, 2001, 2012). Haidt의 이러한 주장은 인지발달론적 입장과 비교하여 매우 짧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으나, 뇌과학을 이용한 연구 성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2000년 이후 수많은 후속연구들을 자극해 왔다(Pizarro & Bloom, 2003; Saltzstein & Kasachkoff, 2004). 도덕적 판단에 관한 두 대립된 입장 간의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Greene(2007)이 제안한 도덕 판단의 이중과정 이론(dual process model of moral judgement)은 도덕적 판단과 관련하여 사고와 정서, 양자 모두를 통합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Conway & Gawronski, 2013). 즉, Greene과 그의 동료들(Greene, 2007; Greene, Sommerville, Nystrom, Darley, & Cohen, 2001)은 Thomson(1986)의 트롤리 딜레마 시나리오와 fMRI를 활용하여 도덕적 판단과 활성화된 뇌 영역 간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타인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시나리오 상황에서 인신적 관여 여부를 질문받게 되었을 때, 실험참여자들의 뇌에서는 편도체를 포함한 정서 관련 영역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다수의 잠재적 희생자들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의무론적 의사결정이 우세했었다. 반면, 비인신적 관여 여부를 질문받았을 때는 전전두엽 등 인지 관련 영역이 활성화되었으며 다수를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이 우세했었다[1]. 이러한 결과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의 도덕적 판단엔 인지적 기제와 정서적 기제가 상호 경쟁관계로써 모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때, 행위에 따른 이익의 고려가 이루어지는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엔 인지적 추론이 주로 작동하며, 원리주의적 원칙 준수가 행위를 지배하는 의무론적 의사결정엔 정서적 직관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Christensen & Gomila, 2012; Ugazio et al., 2011). 더 나아가, 이는 도덕적 판단 및 이에 기반한 도덕적 행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도덕성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임을 말해주

1)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제동장치가 고장난 트롤리가 선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선로 끝에는 5명의 인부가 작업 중인 상황이 실험참여자에게 제시된다. 실험참여자는 인신적 관여 상황과 비인신적 관여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각기 결정해야 하는데, 인신적 관여 상황이란 행인을 직접 밀쳐 다리 아래로 떨어뜨림으로써 질주하는 트롤리를 막아 선로 위에 작업 중인 5명의 인부들을 구하는 조건을 말한다. 반면, 비인신적 관여 상황은 변환기를 조작해 트롤리의 진행 방향을 바꿈으로써 5명의 인부들을 구하고 바뀐 선로 위에 있던 1명의 인부를 희생시키는 조건을 말한다(Thomson, 1986).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6

고 있다.

도덕심리학에서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통합적 입장(Greene, 2007; Greene et al., 2001; Narvaez, 2005, 2006)의 출현과 함께, 윤리적/비윤리적 의사결정의 심리적 과정을 다룬 최근 연구들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각기 살펴보던 것에서 벗어나 이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관점을 시도하고 있다(Conway & Gawronski, 2013; Johnson & Connelly, 2016; Song & Lee, 2010; Stanger, Kavussanu, Boardley, & Ring, 2013; Youn & Lee, 2016a, 2016b). 관련 선행연구들은 Bandura(1991; see also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Bandura, Caprara, Barbaranelli, Pastorelli, & Regalia, 2001)의 사회인지이론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각자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한 개인마다의 도덕적 기준을 가정하고 있다. 만일 개인이 도덕적 기준에 부합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도덕적 자기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지만,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죄책감이라는 자기처벌적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Bandura et al., 1996). 따라서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은 자기처벌을 피하고 도덕적 자기효능감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억제적 측면과 순행적 측면이 작동함으로써 도덕성이 유지되는 마음의 원리를 자기조절기제(self-regulatory mechanism)라고 한다(Bandura et al., 2001). Bandura(Bandura, 1991; Bandura et al., 1996; Bandura et al., 2001)는 자기조절기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 위반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자기조절기제를 무력화시키는 요소로서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을 제안하고 있다. 도덕적 이탈이란 개인이 위반행동을 고려하거나 선택했을 때, 이에 따른 자기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반행동이나 위반행동의 결과, 위반행동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인지적 왜곡과정을 말한다.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도덕적 정당화), 위반행동의 책임을 다수에게 분산시키는 논리(책임감 분산), 위반행동의 책임을 권위자나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는 논리(책임전가, 비난의 귀인) 등 왜곡의 내용에 따라 모두 8가지 전략으로 구분된다(Bandura, 1991). 위반행동에 작용하는 인지적 요소로서 도덕적 이탈은 아동 및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행동, 성인의 폭력행동, 도박행동 등 구체적인 위반행동뿐만 아니라(Gini, 2006; Menesini et al., 2003; Mulford, 2004), 공감, 냉소주의, 도덕적 정체성과 같은 개인차 변인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바 있다(Barnes, Welte, Hoffman, & Dintcheff, 2005; Detert, Treviño, & Sweitzer, 2008).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정신병질도 도덕적 이탈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신병질과 도덕적 이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성과는 1, 2차성 정신병질의 이질성은 물론, 두 정신병질이 범하는 위반행동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신병질' 또는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모호한 범주를 통해 다루는 데 그치고 있다(Detert et al., 2008; Stanger et al., 2013; Stevens, Deuling, & Armenakis, 2012; Youn & Lee, 2016a, 2016b).

Bandura(Bandura, 1991; Bandura et al., 1996)는 자기조절기제에 관한 설명 중 도덕적 기준에 위배된 행동을 선택했을 때 예상 또는 수반되는 자기처벌적 반응으로서 죄책감을 예로 든 바 있다. 즉, Bandura는 죄책감이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하는 정서적 요소로 기능한다고 본 것인데, 이후 도덕적 판단의 정서적 측면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위 '도덕적 정서'에 대한 정교한 설명이 이루어져 왔다(Hoffman, 2000; Lewis & Ramsay, 2002; Menesini & Camodeca, 2008; Stuewig, Tangney, Heigel, Harty, & McCloskey, 2010). 특히, Tangney와 그의 동료들(Tangney & Dearing, 2002; Tangney, Stuewig, & Mashek, 2007)은 실증연구들을 토대로 11개의 도덕적 정서들을 분류·개관했는데, 이 중 도덕적 행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정서들로 수치심, 죄책감, 당혹감을 제안하면서, Bandura의 자기처벌적 반응으로서의 죄책감을 정교화한 바 있다[2]. 수치심과 죄책감, 당혹감은 불쾌한 정서를 동반한 자의식적 정서라는 점에서 심리학자들조차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Ryu & Min, 2002), Tangney 등(Tangney, Miller, Flicker, & Barlow, 1996; Tangney & Dearing, 2002; Tangney et al., 2007)은 이들이 각기 구분되는 정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수치심, 죄책감, 당혹감(이하, 도덕적 정서)은 수치심을 중심으로 구별해볼 수 있다. 먼저 수치심과 죄책감은 자기반추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데 수치심의 자기반추는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죄책감은 자신의 행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Lewis, 1971; Tangney et al., 2007; Tracy & Robins, 2004). 이러한 차이는 대인관계 행동 및 동반되는 심리적 증상의 차이로 이어진다. 즉, 수치심은 자신의 과오를 부정·은폐·회피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는 바, 방어적 행동이나 분리·철수 행동을 촉진하는 반면, 죄책감은 과오에 대한 고백과 사과하려는 시도 및 보상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ckerson, Gruenaewald, & Kemeny, 2004; Ketelaar & Au, 2003; Tangney & Dearing, 2002; Tangney et al., 2007). 한편, 수치심과 당혹감은 수치심과 죄책감보다도 훨씬 더 유사한 정서로

2) Tangney 등(2007)은 초점(focus: 자기-타인)과 유의성(valence: 긍정-부정)을 축으로 도덕적 정서를 자기지향의 긍정정서(도덕적 자부심), 자기지향의 부정정서(수치심, 죄책감, 당혹감), 타인지향의 긍정정서(공감, 연민, 감사, 존경), 타인지향의 부정정서(경멸, 분노, 혐오)의 4개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자기지향의 부정정서들을 도덕적 행동에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서로 소개하면서 그 작동원리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Bandura의 자기조절기제에서 죄책감의 작동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Bandura, 1996; Bandura et al., 2001; Tangney & Dearing, 2002; Tangney et al., 2007).

www.kci.go.kr

간주되는데, 정서적 강도를 통해 두 정서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Miller & Tangney, 1994; Tangney et al., 1996). 즉, 수치심은 심각한 위반행동에 수반되는 정서로서 자신에 대한 전반적, 지속적, 부정적인 귀인과 관련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부도덕함과 자기혐오를 경험하게 된다. 반면, 당혹감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행동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데 일시적이고 상황특정적인 바, 황당함과 함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Miller, 1996; Miller & Tangney, 1994; Tangney et al., 2007).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두 정신병질은 정서반응성에 있어서 상반된 특성을 갖는 바, 이들의 도덕적 정서경험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더욱이 두 정신병질의 위반행동은 각기 다른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도덕적 정서가 작동하는 맥락과 환경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는데, 관련 선행연구들은 정신병질 및 위반행동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러 도덕적 정서들 중 공감만을 제한적으로 다루는 데 머물고 있다(Barnett & Mann, 2013; Blair, 2007; Marshall, Hudson, Jones, & Fernandez, 1995; Marshall & Marshall, 2011).

연구문제

1, 2차성 정신병질이 서로 다르고 이들이 관여하는 위반행동이 각기 다른 동기에서 비롯됨을 고려해 볼 때, 두 정신병질이 위반행동에 관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각각의 다른 설명이 요구된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들은 1, 2차성 정신병질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위반행동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바, 두 정신병질로의 구분이 갖는 임상적 함의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Conway & Gawronski, 2013; Johnson & Connelly, 2016; Youn & Lee, 2016a, 2016b). 본 연구는 도덕판단에 관여하는 인지와 정서의 통합적 관점에서 두 정신병질이 위반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비교,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위반행동에 관여하는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서 각각 도덕적 이탈과 도덕적 정서를 다루고 있는데, 도구적 목적 또는 반응적 성격의 위반행동을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두 정신병질과 각 위반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도덕적 이탈과 도덕적 정서가 각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성 정신병질은 개인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적 목적의 위반행동과 관련되며, 2차성 정신병질의 위반행동은 정서적 과민성의 결과로서 불쾌한 사회적 자극에 대한 반응적 성격을 갖는다(Falkenbach et al., 2008; Hart & Dempster, 1997; Skeem et al., 2003). 따라서 도구적 목적의 위반행동을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개인적 이득이라는 유인가는 1차성 정신병질의 위반행동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이때, 1차성 정신병질의 정서적 둔감성은 도덕적 정서의 둔감성을 예상케 하는 바, 이는 도덕적 정서에 의한 자기처벌 없이도 위반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덕적 정서에 의한 자기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도덕적 이탈을 통해 위반행동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반면, 2차성 정신병질은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위반행동이 동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Mealey, 1995; Porter, 1996), 정서적 과민성은 과민한 또는 적절한 도덕적 정서의 자극으로 이어져 위반행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위반행동의 유인가가 큰 경우에는 도덕적 이탈을 통해 위반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반응적 성격의 위반행동을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1차성 정신병질의 치밀한 계획성 및 합목적적 특성은 충동성이나 정서조절의 실패에 따른 반응적 위반행동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Hare, 1993; Wong, 2000). 그러나 불쾌한 사회적 자극에 대한 보복동기가 강력할 때는 도덕적 이탈을 통해 위반행동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반면, 2차성 정신병질의 경우, 모욕이나 도전 등 불쾌한 사회적 자극에 대한 보복동기는 강력한 유인가가 될 수 있는데(Hovarth & Symonds, 1991; Mealey, 1995; Porter, 1996; Skeem, Johansson, Andershed, Kerr, & Louden, 2007), 정서적으로 과민한 특성상 충동성 및 정서조절의 실패를 통해 위반행동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도덕적 정서에 의한 자기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도덕적 이탈을 통해 위반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도구적 목적과 반응적 성격이라는 각기 다른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두 정신병질이 위반행동에 관여하게 되는 이상과 같은 예상은 Figure 1의 두 연구모형들로 도식화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연구모형들의 적절성 및 아래 가설들을 검증함으로써 연구문제를 풀어보고자 하였다.

가설 1. 연구모형 1에서,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도덕적 정서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연구모형 1에서,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도덕적 이탈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3. 연구모형 1에서,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도덕적 이탈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연구모형 2에서,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도덕적 이탈이 매개할 것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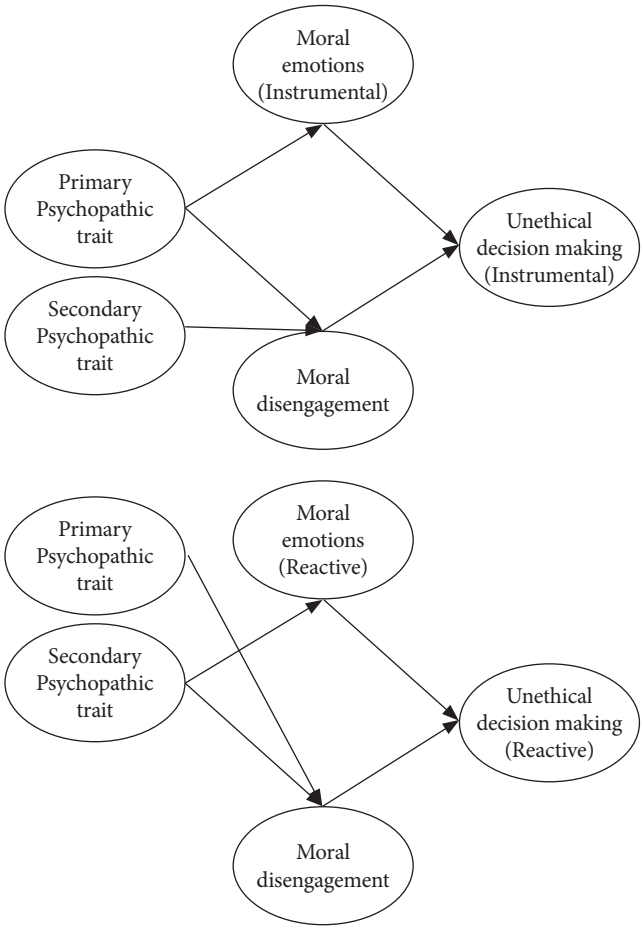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1 (upper) and Research model 2 (lower).*

이다.

가설 5. 연구모형 2에서,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도덕적 정서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6. 연구모형 2에서,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도덕적 이탈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C대학교 내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연구대상

남녀 대학생 712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다. 이 중 무성의하게 작성된 1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696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2.6세로 남자 대학생 240명(23.8세), 여자 대학생 456명(22.0세)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측정도구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질문지(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LSRP)

연구대상자들의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질문지는 비재소자들의 정신병질 특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Levenson, Kiehl, & Fitzpatrick(1995)이 제작했는데, 정신병질 측정을 위한 자기보고식 설문지 중 가장 대중적인 측정도구로 각광받고 있다(Ross, Moltó, Segarra, Pastor, & Montañés, 2007). 전체 26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1차성 정신병질 요인 16문항과 2차성 정신병질 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Lee와 Gong(2007)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국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1차성 정신병질 요인 .76, 2차성 정신병질 요인 .67, 전체 문항 .78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성인용 도덕적 이탈 척도(Mechanism of Moral Disengagement)

도덕적 이탈 척도는 Bandura와 그의 동료들(1996)이 아동 및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로서 Detert 등(2008)에 의해 성인용으로 수정, 작성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tert 등(2008)의 성인용 척도를 Youn과 Lee(2016a)가 우리말로 번안하여 국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 32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작성하게 되며, 비난받을 행동, 위해한 효과, 희생자 등 3개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비난받을 만한 행동 요인 .62, 위해한 효과 요인 .70, 희생자 요인 .7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32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2로 확인되었다.

도덕적 정서 시나리오 척도(Moral Emotions Scenario Scale)

도구적 위반행동을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의 도덕적 정서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Tyszka와 Zaleskiewicz(2012)가 제작하고 Youn과 Lee(2016a)가 우리말로 번안하여 국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에 포함된 4개의 시나리오들은 모두 등장인물 A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도덕 규범을 위반하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다. 설문 응답자들은 자신이 시나리오상에 등장하는 인물 A라 가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경험하게 될 도덕적 정서의 강도를 예상하여 평정하게 된다. 4개의 시나리오들은 모두 수치심, 죄책감, 당혹감을 각기 평정할 수 있으며, 0점(전혀 느끼지 않는다)부터

www.kci.go.kr

100점(완전히 압도될 것이다)까지의 범위 내에서 5점 단위로 평정하게 된다. 정서적 강도에 따른 행동변화를 확인할 목적으로 4개의 시나리오들은 각 2문항씩 약한 도덕적 정서 요인과 강한 도덕적 정서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약한 도덕적 정서 요인 .73, 강한 도덕적 정서 요인 .85로 나타났으며, 전체 4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7로 확인되었다.

아래는 도덕적 정서 시나리오 척도의 문항 예이다.

"인물 A는 경찰로서 현재 순찰 중이다. A는 음주운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의 차량을 멈춰 세웠는데, 역시나 운전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였다. 그 음주 운전자는 A에게 너그럽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넸으며, A는 돈을 받은 후 운전자의 차량을 그냥 보내기로 결정했다."

도덕적 정서 시나리오 척도(반응형)

반응적 위반행동을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의 도덕적 정서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정서 시나리오 척도(반응형)를 제작하여 사용했는데, 다음과 같은 제작과정을 거쳤다.

우선, 연구자는 3명의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자문집단과 함께 대학 재학 중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거나 경험할만한 윤리적 위반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반응적 성격의 위반행동과 관련된 4개의 예비 시나리오 문항을 작성했는데, 각 시나리오들은 대인관계 및 과업수행 상황에서의 실패 또는 좌절에 반응하여 위반행동(공격행동을 포함)에 관여하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다. 4개의 예비 시나리오들은 2인의 임상심리전문가 및 1인의 상담심리전문가에 의해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가', '반응적 성격의 위반행동을 반영하고 있는가' 등의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었다. 이후, 대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예비 시나리오 문항들에 대한 정서가 평정 작업이 실시되었는데, 이들은 시나리오 상황에서 자신이 경험하게 될 도덕적 정서의 강도를 예상하여 평정하였다. 이를 통해 4개의 예비 시나리오들은 각 2문항씩의 약한 도덕적 정서 요인과 강한 도덕적 정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두 요인 간 도덕적 정서경험의 평균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31) = 6.03$, $p < .001$.

도덕적 정서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설문응답자들은 자신이 시나리오상에 등장하는 인물 A라 가정하고, 제시된 상황에서 자신이 경험하게 될 도덕적 정서의 강도를 예상하여 평정하게 된다. 4개의 시나리오들은 모두 수치심, 죄책감, 당혹감을 각기 평정할 수 있으며, 0점(전혀 느끼지 않는다)부터 100점(완전히 압도될 것이다)까지의 범위 내에서 5점 단위로 평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약한 도덕적 정서 요인과 강한 도덕적 정서 요인 모두 .87로 나타났으며, 전체 4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91로 확인되었다.

아래는 도덕적 정서 시나리오 척도(반응형)의 문항 예이다.

"인물 A는 한산한 도로 갓길 위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차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때 승용차 백밀러로 할머니 한 분이 박스를 잔뜩 실은 손수레를 끌고 오는 게 보이더니 어디선가 쿵하는 소리가 들린다. 할머니가 끄는 손수레가 승용차 옆면을 부딪히며 지나갔는지 A의 승용차 출입문엔 긁힌 자국이 선명하다. 인물 A가 할머니를 멈춰 세우고 따져 묻자, 할머니는 생사람 잡는다면서 시치미를 떼는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인물 A는 할머니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가며 험한 막말과 욕설을 퍼붓고 있다."

비윤리적 의사결정 척도(Unethical Decision Making Scale)

도구적 위반행동과 관련된 비윤리적 의사결정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Detert 등(2008)이 제작하고 Youn과 Lee(2016a)가 국내 문화적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도구적 위반행동을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설문응답자들은 각 시나리오 문항을 읽고서 본인이 시나리오상의 인물이라면 그 인물의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를 1점(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부터 7점(매우 일치한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된다. 전체 8문항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74로 확인되었다.

아래는 비윤리적 의사결정 척도의 문항 예이다.

"당신은 시내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종업원들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당신은 학교 수업을 마치는 대로 곧장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배가 몹시 고픈 상태다. 마침 당신의 매니저는 자리를 비우고 없다. 그래서 당신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주방에 있는 식재료들을 이용해 뭔가를 만들어 먹었다"

비윤리적 의사결정 척도(반응형)

반응적 위반행동과 관련된 비윤리적 의사결정 경향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윤리적 의사결정 척도(반응형)를 제작하여 사용했는데, 다음과 같은 제작과정을 거쳤다.

먼저 연구자는 3명의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자문집단과의 논의를 통해 8개의 시나리오들로 구성된 비윤리적 의사결정 척도(반응형)를 작성하였다. 8개의 시나리오 문항들은 모두 대인관계 및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경험했을 법한 좌절과 이에 반응한 위반행동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다. 작성된 시나리오 문항들은 모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6

두 2인의 임상심리전문가 및 1인의 상담심리전문가에게 전달되어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가', '반응적 성격의 위반행동을 반영하고 있는가' 등의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었다. 또한 8개의 시나리오 문항들이 설문응답자들의 반응적 위반행동 경향성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수렴타당도 확인작업을 실시하였다. 수렴타당도 확인은 좌절 및 갈등에 반응하여 타인에게 폭행이나 욕설, 비방, 따돌림 등 최근 3년간의 직간접적인 공격행동을 5점 리커트 척도로 묻는 반응적 위반행동 목록을 작성한 후, 대학생 86명을 대상으로 반응적 위반행동 목록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척도(반응형)를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설문 결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척도(반응형)와 반응적 위반행동 목록 간의 상관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 = .50$, $p < .001$.

비윤리적 의사결정 척도와 마찬가지로, 설문응답자들은 각 시나리오 문항을 읽고서 본인이 시나리오상의 인물이라면 그 인물의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를 1점(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부터 7점(매우 일치한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전체 8문항(단일 요인)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74로 확인되었다.

아래는 비윤리적 의사결정 척도(반응형)의 문항 예이다.

"당신은 커피 전문점에서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다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문자는 며칠 전에 지원한 A회사 인사담당자가 보낸 것으로 공개채용에 불합격되었다는 통보였다. 면접관도 내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불합격 통보를 받고 보니 실망감과 함께 울컥하는 마음이 든다. 이때 주문한 커피가 나왔다는 점원의 호출이 있다. 커피를 가지러 음료대에 가보니 내가 주문한 메뉴가 아닌 다른 메뉴다. 자신의 실수에 당황해 하고 있는 점원에게 당신은 얼굴을 붉힌 채 언성을 높여가며 화를 내고 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Sub-factors	*M* (*SD*)
Psychopathic traits	Primary	35.02 (5.84)
	Secondary	22.51 (3.81)
	Total	57.53 (7.93)
Moral disengagement	Reprehensible conduct	2.46 (.37)
	Detrimental effect	2.24 (.40)
	Victim	2.41 (.56)
	Total	2.37 (.33)
Moral emotions (Instrumental)	Strong	73.86 (18.62)
	Weak	63.33 (17.52)
	Total	68.59 (16.87)
Moral emotions (Reactive)	Strong	54.25 (19.86)
	Weak	40.83 (21.69)
	Total	47.54 (18.78)
Unethical decision making	Instrumental	2.95 (1.01)
	Reactive	2.67 (.89)

자료분석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수집된 자료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모형과 경로모형의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고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AMOS 20.0과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정신병질 특성, 도덕적 정서, 도덕적 이탈, 비윤리적 의사결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주요변인 간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들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연구모형 1(도구적 목적)의 변수들을 포함하는 측정모형 1과 연구모형 2(반응적 성격)의 변수들을 포함하는 측정모형 2를 통해 이루어졌다.

측정모형 1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27.44$($df = 13$, $p = .001$), TLI = .98, CFI = .99, RMSEA = .04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측정변수들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1 Primary						
2 Secondary	.32**					
3 Moral emotions (Instrumental)	-.34**	-.05**				
4 Moral emotions (Reactive)	-.24**	-.11**	.51**			
5 Moral disengagement	.49**	.35**	-.26**	-.25**		
6 Unethical decision making (Instrumental)	.42**	.20**	-.32**	-.21**	.47**	
7 Unethical decision making (Reactive)	.23**	.24**	-.22**	-.27**	.40**	.47**

**$p < .01$.

www.kci.go.kr

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모두 유의미했으며($p<.001$), 표준화 계수는 최소 .58부터 최대 .99까지 분포하였다.

측정모형 2의 적합도 지수는 $\chi^2=48.76$($df=13$, $p=.001$), TLI=.94, CFI=.97, RMSEA=.06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측정변수들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모두 유의미했으며($p<.001$), 표준화 계수는 최소 .57부터 최대 .99까지 분포하였다.

연구모형 검증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도구적 목적/반응적 성격)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정서(도구적 목적/반응적 성격) 및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연구모형 1(도구적 목적)과 연구모형 2(반응적 성격)에 대한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검증을 통해 산출된 연구모형 1과 2의 적합도를 Table 3에 제시하였으며, 각 경로계수는 Table 4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1의 모형검증 결과, 연구모형 1의 적합도 지수는 $\chi^2=42.65$($df=14$, $p=.001$), TLI=.96, CFI=.98, RMSEA=.05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1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2차성 정신병질 특성에 따른 경로의 이질성이 확인되었다. 즉, 1차성 정

Table 3. *Model Fits of Research Models*

	χ^2	*df*	TLI	CFI	RMSEA
Research model 1	42.65	14	.96	.98	.05
Research model 2	62.35	14	.92	.9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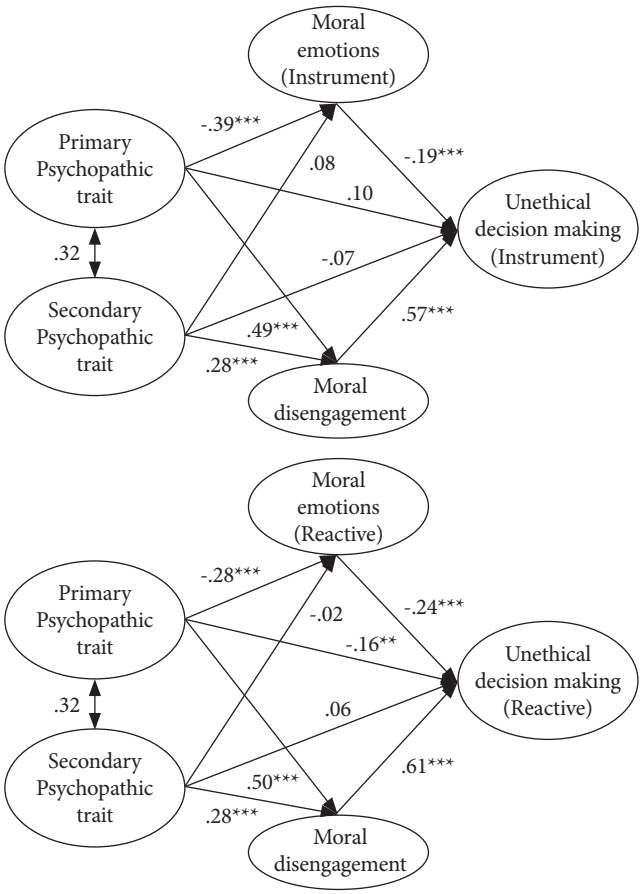

Figure 2. *Path estimates of research model 1(upper) and 2(lower). **p<.01. ***p<.001.*

Table 4. *Path Estimates of Research Models*

Path of Research model 1	*B*	*β*	*SE*	*t*
Primary→ Unethical decision making (Instrumental)	.02	.10	.01	1.77†
Primary→ Moral emotions (Instrumental)	-.92	-.39	.11	-8.24***
Primary→ Moral disengagement	.03	.49	.01	9.95***
Secondary→ Unethical decision making (Instrumental)	-.02	-.07	.01	-1.62
Secondary→ Moral emotions (Instrumental)	.28	.08	.15	1.91†
Secondary→ Moral disengagement	.03	.28	.01	6.29***
Moral emotions(Instrumental)→ Unethical decision making (Instrumental)	-.01	-.19	.01	-4.70***
Moral disengagement→ Unethical decision making (Instrumental)	1.53	.57	.20	7.69***
Path of Research model 2				
Primary→ Unethical decision making (Reactive)	-.20	-.16	.01	-2.60**
Primary → Moral emotions (Reactive)	-.73	-.28	.13	-5.48***
Primary → Moral disengagement	.03	.50	.01	10.03***
Secondary → Unethical decision making (Reactive)	.01	.06	.01	1.11
Secondary → Moral emotions (Reactive)	-.09	-.02	.17	-.53
Secondary → Moral disengagement	.03	.28	.01	6.27***
Moral emotions (Reactive)→ Unethical decision making (Reactive)	-.01	-.24	.01	-4.99***
Moral disengagement→ Unethical decision making (Reactive)	1.29	.61	.18	7.09***

†$p<.10$. **$p<.01$. ***$p<.001$.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6

신병질 특성과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경향성이 시사된 바,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0$, $p<.10$. 또한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은 증가하는 반면, $\beta=.49$, $p<.001$, 도덕적 정서(도구적)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9$, $p<.001$. 한편,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직접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beta=-.07$, *ns*. 그러나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정서(도구적), $\beta=.08$, $p<.10$ 및 도덕적 이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8$, $p<.001$. 이밖에, 도덕적 정서(도구적)가 증가할수록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은 감소하였으며, $\beta=-.19$, $p<.001$, 도덕적 이탈이 증가할수록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7$, $p<.001$.

연구모형 2의 모형검증 결과, 연구모형 2의 적합도 지수는 $\chi^2=62.35$($df=14$, $p=.001$), TLI=.92, CFI=.96, RMSEA=.07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 2를 통해서도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2차성 정신병질 특성에 따른 경로의 이질성이 확인되었다. 즉,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에 직접효과가 확인되었는데,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6$, $p<.01$. 또한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은 증가하는 반면, $\beta=.50$, $p<.001$, 도덕적 정서(반응적)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8$, $p<.001$. 한편,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beta=.06$, *ns*., 도덕적 정서(반응적)와의 관계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02$, *ns*. 그러나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도덕적 이탈 간의 관계는 유의한 바,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8$, $p<.001$. 이밖에, 도덕적 정서(반응적)가 증가할수록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은 감소하였으며, $\beta=-.24$, $p<.001$, 도덕적 이탈이 증가할수록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61$, $p<.001$.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검증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를 통해 확인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 검증은 Bootstrapping 절차를 활용했는데, Bootstrap 수행을 500으로 설정하고 최대우도법(ML)을 사용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지정한 후 분석하였다. 검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1에 대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경우,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가 [.47, .26]으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정서(도구적)와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36$, $p<.01$. 또한 도덕적 정서(도구적)와 도덕적 이탈 각각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고자 Sobel test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 $Z=5.94$, $p<.001$, 및 도덕적 정서(도구적)의 간접효과, $Z=3.84$, $p<.001$, 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경우,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가 [.24, .07]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정서(도구적)와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15$, $p<.01$. 또한 도덕적 정서(도구적)와 도덕적 이탈 각각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고자 Sobel test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였으나, $Z=4.85$, $p<.001$, 도덕적 정서(도구적)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Z=1.75$, *ns*.

연구모형 2에 대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경우,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가 [.49, .26]으로 0

Table 5. *Indirect Effect of Moral Emotions and Moral Disengagement on Primary-Secondary Psychopathic trait and Unethical Decision Making*

Path			Indirect effect	Confidence Upper	Interval Lower
Primary	→Moral emotions (Instru) →Moral disengagement	→Unethical decision making (Instrumental)	.36**	.47	.26
Secondary	→Moral emotions (Instru) →Moral disengagement	→Unethical decision making (Instrumental)	.15**	.24	.07
Primary	→Moral emotions (React) →Moral disengagement	→Unethical decision Making (Reactive)	.37**	.49	.26
Secondary	→Moral emotions (React) →Moral disengagement	→Unethical decision Making (Reactive)	.18**	.27	.09

**$p<.01$.

www.kci.go.kr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정서(반응적)와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37$, $p < .01$. 또한 도덕적 정서(반응적)와 도덕적 이탈 각각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고자 Sobel test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 $Z = 5.71$, $p < .001$, 및 도덕적 정서(반응적)의 간접효과, $Z = 4.05$, $p < .001$, 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경우,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가 [.27, .09]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정서(반응적)와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18$, $p < .01$. 또한 도덕적 정서(반응적)와 도덕적 이탈 각각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고자 Sobel test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였으나, $Z = 4.68$, $p < .001$, 도덕적 정서(반응적)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Z = 0.52$, *ns*.

논 의

본 연구는 정신병질이 하나의 장애가 아니라 1차성과 2차성으로 구별되는 이질적인 장애이며, 두 정신병질의 위반행동이 도구적 목적과 반응적 성격이라는 이질적인 동기와 행동표현형을 특징으로 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Baumeister, 1997; Falkenbach et al., 2008; Geen & Donnerstein, 1998; Hart & Dempster, 1997). 이에 본 연구자는 두 정신병질의 위반행동이 도구적 목적 또는 반응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위반행동에 이르는 두 정신병질의 심리적 과정은 각기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도구적, 반응적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이탈이 매개하는 두 개의 연구모형에 대한 모형검증을 실시하고 관련 경로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Youn과 Lee(2016a)는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와 함께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직접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Youn과 Lee(2016a)의 연구는 위반행동을 도구적 목적과 반응적 성격으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연구에 활용된 척도들이 모두 도구적 목적의 윤리적 갈등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던 바(Detert et al., 2008; Tyszka & Zaleskiewicz, 2012), 당시 연구는 사실상 두 정신병질과 도구적 목적의 위반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 1과 Youn과 Lee(2016a)의 연구는 동일한 변인과 경로들을 다루고 있는 관계로 연구모형 1에 대한 논의는 Youn과 Lee(2016a)의 연구결과와 비교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연구모형 1에서는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직접효과의 경향성이 시사되었으며, 더불어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1과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정서 경험은 감소하며, 도덕적 정서 경험의 감소는 도구적 목적의 위반행동 수준을 높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잦은 도덕적 이탈을 보이며, 도덕적 이탈이 빈번해질수록 도구적 목적의 위반행동 수준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편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에는 도덕적 이탈이 완전매개하는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이 빈번해지며, 도덕적 이탈의 증가는 도구적 목적의 위반행동 수준을 높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2차성 정신병질의 도구적 목적의 위반행동은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닐 뿐더러 도덕적 정서와는 무관하며 도덕적 이탈이라는 인지적 왜곡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에 직접효과의 검증력이 낮아진 것을 제외하고는 Youn과 Lee(2016)의 연구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 1은 도구적 목적의 위반행동과 관련하여 두 정신병질에 대한 차별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반복 검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연구모형 2에 관한 논의는 두 정신병질과 두 가지 위반행동의 이질성을 함께 고려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연구모형 1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서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직접효과와 함께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중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는 가설 4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이 빈번해지며, 빈번한 도덕적 이탈은 반응적 성격의 위반행동 수준을 높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직접효과와 도덕적 정서의 간접효과는 가설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서 이에 대한 사후설명이 요구된다. 먼저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부적인 직접효과는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모형1에서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1차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6

성 정신병질 특성이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이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도구적 목적의 위반행동을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과 반응적 성격의 위반행동을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1차성 정신병질이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차성 정신병질은 개인적 이득이 유인가로 작용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는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위반행동에 관여하는 반면, 분노나 모욕에 따른 보복이 유인가로 작용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는 직접적인 관여를 삼가는 대신 도덕적 정서 경험을 억제하거나 도덕적 이탈이라는 우회적인 과정을 통해 위반행동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모형 1에서와 같이, 연구모형 2에서도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 도덕적 정서의 간접효과가 확인된 점은 1차성 정신병질의 특징인 '정서적 둔감성'이 각 정서별로 설명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Skeem et al., 2003). 즉, 1차성 정신병질이 둔감성을 보이는 정서는 불안과 같은 부적정서 및 도덕적 정서들이지 분노나 모욕, 적개심과 같은 공격행동과 관련된 정서들이 아니라는 점이다(Falkenbach et al., 2008; Hundt, Kimbrel, Mitchell, & Nelson-Gray, 2008; McHoskey, Worzel, & Szyarto, 1998). 따라서 불쾌한 사회적 자극에 대한 반응은 1차성 정신병질이 위반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으며, 도덕적 정서 경험을 억제하는 과정을 통해 위반행동에 관여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한편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경우,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서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직접효과 및 도덕적 정서의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중 도덕적 정서의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통해 가설 5는 지지되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모형 1에서도 도덕적 정서의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동시에 연구모형 1, 2를 통해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도덕적 정서 간의 경로가 일관된 부적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2차성 정신병질이 경계선 성격특성과 상당한 중첩을 보인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Blackburn, 1996, 1998), 상기한 연구결과는 2차성 정신병질의 불안정한 정서상태는 도덕적 정서경험에 있어서도 1차성 정신병질과 같이 일관된 양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1차성 정신병질은 도덕적 정서의 '차단'이라는 일관된 기제가 작동한다면, 2차성 정신병질은 공격행동을 자극하는 정서들과 도덕적 정서의 '혼란'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이 완전매개하는 간접효과가 확인된 것은 가설 6을 지지하는 결과이자, 연구모형 1에서 도덕적 이탈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이는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이 빈번해지며, 도덕적 이탈의 증가는 반응적 성격의 위반행동 수준을 높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더불어 2차성 정신병질의 예방과 치료, 교정에 있어서 인지적 왜곡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밖에,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에서 직접경로의 방향이 각각 부적, 정적으로 상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에서 1차성 정신병질에서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직접경로의 방향이 각각 정적, 부적인 것과 상반된 것이기도 하다. 이는 도구적 목적의 위반행동을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과 반응적 성격의 위반행동을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1차성 정신병질과 2차성 정신병질의 반응특성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향후 정신병질의 예방과 치료, 연구에 있어서 1차성과 2차성, 도구적 목적과 반응적 성격을 구분하여 다뤄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PCL-R(Hare, 1991)이 제작된 이후로 두 정신병질에 대한 구분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은 주로 둘 간의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집중해 왔다. 본 연구는 두 정신병질이 위반행동에 이르는 각기 다른 심리적 과정을 설명, 비교함으로써 두 정신병질의 구분이 갖는 임상적 함의를 모색하고 있다.

둘째, 정신병질 연구에서 정신병질 및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모호한 구성개념의 활용은 정신병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만드는 데 한계로 작용해 왔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의 정신병질 연구가 두 정신병질 및 두 가지 위반행동을 통해 다뤄질 때 보다 심화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가 연구모형을 통해 제시한 일련의 심리적 과정은 도덕성 연구의 최근 동향이라 할 수 있는 인지와 정서의 통합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덕판단의 기제가 무엇인가'라는 도덕심리학의 주요문제를 정신병질 연구에 활용한 것으로 정신병질과 위반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이론적 지형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들어 정신병질에 대한 차원적 모델이 수용되고 있는데(Marcus, John, & Edens, 2004; Walters, Duncan, & Mitchell-Perez, 2007), 이는 LSRP와 같은 정신병질 측정도구들의 요인구조가 일반집단과 교정 및 법의학 장면의 피험자 집단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하고 있다(Chapman, Gremore, & Farmer, 2003; Edens, Poythress, & Lilienfeld, 1999; Lilienfeld &

www.kci.go.kr

Andrew, 1996). 이에 따라 대학생 및 커뮤니티 샘플을 활용한 정신병질 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며(Hare & Neumann, 2008; Jones, Cauffman, Miller, & Mulvey, 2006; Vitacco, Neumann, & Jackon, 2005), 본 연구 또한 대학생들로부터 측정된 정신병질 특성을 통해 정신병질에 대한 개념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신병질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아닌 바, 위반행동에 이르는 정신병질자들의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엄연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가설들은 정신병질자 또는 정신병질 성향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제된 실험을 통해 확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MMPI-2는 국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객관적 성격검사 도구 중 하나이다(Lee & Choi, 2016), 임상척도 중 4(Pd)번 및 9(Ma)번 척도는 MMPI 원판부터 오랫동안 정신병질 특성 평가에 이용되어 왔다(Lilienfeld, 1996; Sellborm, Ben-Porath, Lilienfeld, Patrick, & Graham, 2005). 그러나 연구자들은 두 척도가 PCL-R과 낮은 상관을 보인다는 점, PCL-R의 두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그 타당도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Harpur, Hare, & Hakstian, 1989; Lilienfeld, 1996; Sellborm et al., 2005). 재구성 임상척도 중 RC4 및 RC9, 내용척도 중 반사회적 특성(ASP)이 우수한 증분타당도를 바탕으로 4(Pd)번 및 9(Ma)번 척도의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Butcher, Graham, Williams, & Ben-Porath, 1990; Sellborm et al., 2005). 그러나 이 척도들 또한 PCL-R의 두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었다(Alterman, Cacciola, & Rutherford, 1993; Lilienfeld, 1996). 따라서 Lilienfeld(1996)는 반사회적 특성(ASP)의 두 하위요인들인 반사회적 태도(ASP 1)와 반사회적 행동(ASP 2)이 각각 PCL-R 1요인과 2요인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아는 한 이러한 목적의 국내외 연구는 현재까지 수행된 바 없다. 또한 MMPI-2가 제공하는 다양한 척도들을 활용하여 1, 2차성 정신병질을 변별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으나(Sellborm et al., 2005), 이를 목적으로 MMPI-2 문항을 활용한 단일 척도 구성작업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MMPI-2의 폭넓은 활용도와 1, 2차성 정신병질 간의 구분이 갖는 임상적 함의를 고려할 때, 두 정신병질의 변별과 관련하여 MMPI-2의 유용성을 높이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반사회적 특성(ASP)과 PCL-R을 구성하는 두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하겠으며, 더 나아가 두 정신병질의 변별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척도구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References

Alterman, A. I., Cacciola, J. S., & Rutherford, M. J. (1993). Reliability of the Revised Psychopathy Checklist in substance abuse pati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 442-448.

Alterman, A. I., McDermott, P. A., Cacciola, J. S., Rutherford, M. J., Boardman, C. R., McKay, J. R., & Cook, T. G. (1998). A typology of antisociality in methadone pati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 412-422.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moral thought and action.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pp. 45-103). Hillsdale, NJ: Erlbaum.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364-374.

Bandura, A., Caprara, G. V., Barbaranelli, C., Pastorelli, C., & Regalia, C. (2001). Sociocognit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125-135.

Barnes, G. A., Welte, J. W., Hoffman, H., & Dintcheff, B. A. (2005). Shared predictors of youthful gambling, substance use, and delinquency.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 19*, 165-174.

Barnett, G., & Mann, R. E. (2013). Empathy deficits and sexual offending: A model of obstacles to empath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8*, 228-239.

Baumeister, R. F. (1997). *Evil: Inside human violence and cruelty*. New York, NY: Freeman.

Blackburn, R. (1975). An empirical classification of psychopathic personalit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7*, 456-460.

Blackburn, R. (1996). Psychopathy and personality disorder: Implication of interpersonal theory. *Issues in Criminological and Legal Psychology, 24*, 18-23.

Blackburn, R. (1998). Psychopathy and personality disorder: Implications of interpersonal theory. In D. Cooke, A. Forth, & R. Hare. (Eds.), *Psychopathy: Theory,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society* (pp. 269-301).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Blackburn, R., & Coid, J. (1999). Empirical clusters of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in violent offen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3*, 18-34.

Blair, R. J. R. (2007). Empathic disfunction in psychopathic individuals. In F. T. D. Farrow, & P. W. R. Woodruff (Eds), *Empathy in mental illness* (pp. 3-16).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tcher, J. N., Graham, J. R., Williams, C. L., & Ben-Porath, Y. S. (1990). *Development and use of the MMPI-2 content scal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Chapman, A. L., Gremore, T. M., & Farmer, R. F. (2003).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PPI)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6

with female inmat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0*, 164-172.

Christensen, J. F., & Gomila, A. (2012). Moral dilemmas in cognitive neuroscience of moral decision-making: A principled review.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36*, 1249-1264.

Conway, P., & Gawronski, B. (2013). Deontological and utilitarian inclinations in moral decision making: A process dissociation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 216-235.

Cooke, D. J., & Michie, C. (2001). Refining the construct of psychopathy: Towards a hierarchical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13*, 171-188.

Detert, J. R., Treviño, L. K., & Sweitzer, V. L. (2008). Moral disengagement in ethical decision making: A study of antecedents and outcom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 374-391.

Dickerson, S. L., Gruenaewald, T. L., & Kemeny, M. E. (2004). When the social self is threatened: Shame, physiology,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72*, 1191-1216.

Edens, J. F., Poythress, N. G., Lilienfeld, S. O. (1999). Identifying inmates at risk for disciplinary infractions: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sychopathy.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7*, 435-443.

Falkenbach, D., Poythress, N. G., & Greevy, C. (2008). The exploration of subclinical psychopathic subtypes and the relationship with types of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821-832.

Frick, P. J., Lilienfeld, S. O., Ellis, M., Loney, B., & Silverthorn, P. (1999). The association between anxiety and psychopathy dimensions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 383-392.

Geen, R. G., & Donnerstein, E. (1998). *Human aggression: Theories,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San Diego, California: Academic Press.

Gini, G. (2006). Social cognition and moral cognition in bullying: What's wrong? *Aggressive Behavior, 32*, 528-539.

Greene, J. D. (2007). Why are VMPFC patients more utilitarian? A dual-process theory of moral judgment explain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 322-323.

Greene, J. D., Sommerville, R. B., Nystrom, L. E., Darley, J. M., & Cohen, J. D. (2001). An fMRI investigation of emotional engagement in moral judgment, *Science, 293*, 2015-2108.

Haapasalo, J., & Pulkkinen, L. (1992). The psychopathy checklist and non-violent offender groups.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 315-328.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 814-834.

Haidt, J. (2012). *The righteous mind: Why good people are divided by politics and religion*. New York, NY: Pantheon books.

Hare, R. D. (1991). *Manual for the Hare Revised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Toronto, Canada: Multi-Health Systems.

Hare, R. D. (1993). *Without conscience: The disturbing world of the psychopaths among us*. New York, NY: Pocket Books.

Hare, R. D., & Neumann, C. S. (2008). Psychopathy as a clinical and empirical construc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4*, 217-246.

Harpur, T., Hare, R., & Hakstian, R. (1989). A two-factor conceptualization of psychopathy: Construct validity and implications for assess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03*, 741-747.

Hart, S. D., & Dempster, R. J. (1997). Impulsivity and psychopathy. In C. D. Webster & M. A. Jackson (Eds.), *Impulsivity: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 212-232). New York, NY: Guilford Press.

Hervé, H. F., Ling, J. Y. H., & Hare, R. D. (2000, March). *Criminal psychopathy and its subtype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y-Law Society. New Orleans, LA.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varth, A., & Symonds, B. (1991). The role of the therapeutic alliance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8*, 139-149.

Hundt, N. E., Kimbrel, N. A., Mitchell, J. T., & Nelson-Gray, R. O. (2008). High BAS, but not low BIS, predicts externalizing symptoms in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565-575.

Hutcherson, C. A., & Gross, J. J. (2011). The moral emotions: A social-functionalist account of anger, disgust, and contem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 719-737.

Johnson, J. F., & Connelly, S. (2016). Moral disengagement and ethical decision-making: The moderating role of trait guilt and shame. *Journal of Personnel Psychology, 15*, 184-189.

Jones, S., Cauffman, E., Miller, J. D., & Mulvey, E. (2006). Investigating different factor structures of the psychopathy checklist: Youth version: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findings. *Psychological Assessment, 18*, 33-48.

Karpman, B. (1941). On the need for separating psychopathy into two distinct clinical types: Symptomatic and idiopathic. *Journal of Criminology and Psychopathology, 3*, 112-137.

Karpman, B. (1948). The myth of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4*, 523-534.

Ketelaar, T., & Au, W. T. (2003). The effects of feelings of guilt on the behavior of uncooperative individuals in repeated social bargaining games: An affect-as-information interpretation of the role of emotion in social interaction. *Cognition and Emotion, 17*, 429-453.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

www.kci.go.kr

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A.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pp. 347-480). Chicago, IL: Rand McNally.

Lee, H. J., & Choi, Y. H. (2016). Characteristics of male alcohol-dependent patients based on MMPI-2 profile typolog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723-733.

Lee, S. J., & Gong, J. S. (2007). Characteristic analysis of domestic homicidal behavior based on psychopathy.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13*, 1-23.

Levenson, M. R., Kiehl, K. A., & Fitzpatrick, C. M. (1995). Assessing psychopathic attributes in a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8*, 151-158.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Psychoanalytic Review, 58*, 419-438.

Lewis, M., & Ramsay, D. (2002). Cortisol response to embarrassment and shame. *Child development, 73*, 1034-1045.

Lilienfeld, S. O. (1996). The MMPI-2 antisocial practices content scale: Construct validity and comparison with the psychopathic deviat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8*, 281-293.

Lilienfeld, S. O., & Andrews, B. P. (1996).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psychopathic personality traits in noncriminal popu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488-524.

Lincoln, S. H., & Holmes, E. K. (2010). The psychology of making ethical decisions: What affects the decision? *Psychological Services, 7*, 57-64.

Lykken, D. T. (1995). *The antisocial personalities*.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Marcus, D. K., John, S. L., & Edens, J. F. (2004). A taxometric analysis of psychopathic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 626-635.

Marshall, L. E., & Marshall, W. L. (2011). Empathy and antisocial behaviour.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2*, 742-759.

Marshall, W. L., Hudson, S. M., Jones, R., & Fernandez, Y. M. (1995). Empathy in sex offen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5*, 99-113.

McHoskey, J., Worzel, W., & Szyarto, C. (1998).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92-210.

Mealey, L. (1995). Primary sociopathy (psychopathy) is a type, secondary is not.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9*, 579-599.

Menesini, E., & Camodeca, M. (2008). Shame and guilt as behaviour regulators: Relationships with bullying, victimization and prosocial behavior. *Th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6*, 183-196.

Menesini, E., Sanchez, V., Fonzi, A., Ortega, R., Costabile, A., & Feudo, G. L. (2003). Moral emotion and bulling: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bullies, victims and outsiders. *Aggressive Behavior, 29*, 515-530.

Miller, R. S. (1996). *Embarrassment: Poise and peril in everyday life*. New York, NY: Guilford Press.

Miller, R. S., & Tangney, J. P. (1994). Differentiating embarrassment and sham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273-287.

Mulford, C. F. (2004). Restorative justice and the development of empathy, remorse and moral disengagement in adolescent offende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4*, 5256.

Narvaez, D. (2005). The Neo-Kohlbergian tradition and beyond: Schemas, expertise and character. In G. Carlo & C. Pope-Edwards (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51: Moral Motivation through the Lifespan* (pp. 119-163),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Narvaez, D. (2006). 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In M. Killen & J.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pp. 703-773), Mahwah, NJ: Erlbaum.

Newman, J. P., & Schmitt, W. A. (1998). Passive avoidance in psychopathic offender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 527-532.

Newman, J. P., Schmitt, W. A., & Voss, W. D. (1997). The impact of motivationally neutral cues on psychopathic individuals: Assessing the generality of the response modulation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563-575.

Piaget, J. (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NY: Free Press.

Pizarro, D. A., & Bloom, P. (2003). The intelligence of the moral intuitions: A comment on Haidt (2001). *Psychological Review, 110*, 193-196.

Porter, S. (1996). Without conscience or without active conscience? The etiology of psychopathy revisited.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 179-189.

Rest, J. (1979).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Ross, S. R., Moltó, J. R., Segarra, P., Pastor, M. C., & Montañés, C. (2007). Gray's model and psychopathy: BIS but not BAS differentiates primary from secondary psychopathy in non-institutionalized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1622-1655.

Ryu, K., & Min, K. H. (2001). The development of moral emotions: Shame and guilt. *Psychological Science, 11*, 53-69.

Saltzstein, H. D., & Kasachkoff, T. (2004). Haidt's moral intuitionist theory: A psychological and philosophical critiqu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8*, 273-282.

Sellborm, M., Ben-Porath, Y. S., Lilienfeld, S. O., Patrick, C. J., & Graham, J. R. (2005). Assessing psychopathic personality trait with the MMPI-2.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5*, 334-343.

Skeem, J., Johansson, P., Andershed, H., Kerr, M., & Louden, J. (2007). Two subtypes of psychopathic violent offenders that parallel primary and secondary varia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 395-409.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6

Skeem, J. L., Poythress, N., Edens, J. F., Lilienfeld, S. O., & Cale, E. M. (2003). Psychopathic personality or personalities? Exploring potential variants of psychopathy and their implications for risk assessment.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8*, 513-546.

Song, K. H., & Lee, S. Y. (2010). The relationship among theory of mind, proactive bullying and defending behaviors in adolescents: Mediation effects of moral disengagement and moral emotion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05-124.

Stanger, N., Kavussanu, M., Boardley, I. D., & Ring, C. (2013). The influence of moral disengagement and negative emotions on antisocial sport behavior. *Sport, Exercise and Performance Psychology, 2*, 117-129.

Stevens, G. W., Deuling, J. K., & Armenakis, A. A. (2012). Successful psychopaths: Are they unethical decision-makers and wh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5*, 139-149.

Stuewig, J., Tangney, J. P., Heigel, C., Harty, L., & McCloskey, L. (2010). Shaming, blaming, and maiming: Functional links among the moral emotions, externalization of blame, and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 91-102.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NY: Guilford Press.

Tangney, J. P., Miller, R. S., Flicker, L., & Barlow, D. H. (1996). Are shame, guilt, and embarrassment distinct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256-1269.

Tangney, J. P., Stuewig, J., & Mashek, D. J. (2007). Moral emotion and moral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345-372.

Thomson, J. J. (1986). *Rights, restitution and risk*.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Tracy, J. L., & Robins, R. W. (2004). Putting the self-conscious emotions: A theoretical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5*, 103-125.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Tyszka, T., & Zaleskiewicz, T. (2012). The strength of emotions in moral judgment and decision-making under risk. *Polish Psychological Bulletin, 43*, 132-144.

Ugazio, G., Lamm, C., & Singer, T. (2011). The role of emotions for moral judgments depends on the type of emotion and moral scenario. *Emotion, 12*, 579-590.

Verona, E., Patrick, C. J., & Joiner, T. T. (2001). Psychopathy, antisocial personality, and suicide risk.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 462-470.

Vitacco, M. J., Neumann, C. S., & Jackson, R. L. (2005). Testing a four-factor model of psychopathy and its association with ethnicity, gender, intelligence, and viol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 466-476.

Walters, G. D., Duncan, S. A., & Mitchell-Perez, K. (2007). The latent structure of psychopathy: A taxometric investigation of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in a heterogeneous sample of male prison inmates. *Assessment, 14*, 270-278.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Wink, P., & Donahue, K. (1997). The relation between two types of narcissism and boredo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136-140.

Wong, S. (2000). Psychopathic offenders. In S. Hodgins & R. Muller-Isberner (Eds.), *Violence, crime and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Concepts and methods for effective treatment* (pp. 87-112). London: Wiley.

Youn, H., & Lee, Y. H. (2016a).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ic traits and unethical decision making: Mediating effect of moral emotions and moral disengagement.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453-472.

Youn, H., & Lee, Y. H. (2016b). The effect of strength of moral emotions and moral disengagement cues on unethical decision making of people with psychopathic tendenc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683-696.

www.kci.go.kr

국문초록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도구적 위반행동 및 반응적 위반행동: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이탈,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윤 황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1, 2차성 정신병질의 위반행동은 도구적 목적과 반응적 성격의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는 두 정신병질의 이질성이 갖는 임상적 함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두 정신병질이 위반행동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들을 비교하였다. 남녀 대학생 712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질문지, 한국판 성인용 도덕적 이탈 척도, 도덕적 정서 시나리오(도구형/반응형), 비윤리적 의사결정 척도(도구형/반응형)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두 정신병질과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 도덕적 정서, 도덕적 이탈이 매개하는 연구모형 1과 두 정신병질과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 도덕적 정서, 도덕적 이탈이 매개하는 연구모형 2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고 직간접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모형 1을 통해서는 1차성 정신병질과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며, 2차성 정신병질과 도구적 목적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엔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모형 2에서는 1차성 정신병질과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 직접효과 및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며, 2차성 정신병질과 반응적 성격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엔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두 정신병질의 예방과 치료, 교육에 있어서 위반행동에 따른 효과적인 개입지점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1차성 정신병질, 2차성 정신병질, 도덕성, 비윤리적 의사결정, 도덕적 정서, 도덕적 이탈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6